



군산자봉 '기업나눔 ESG 파트너' 불린투어링 성료

(사)군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민재)는 10일 임피면 향교초등학교에서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기업나눔 ESG 파트너 불린투어링'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기업나눔 ESG 파트너 불린투어링'은 기업의 ESG 경영 실천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연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기업과 공공기관 자원봉사단체가 협력해 다양한 나눔 활동을 전개하며 지역사회 환경·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사업이다.

이번 행사에는 한화에너지(주) 군산공장, 한국가스기술공사 전북지사, (주)코어, (주)김장독, 서광수출포장(주) 등이 참여해 생필품을 후원하며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응원했다.

또한 군산의료원과 동군산병원은 지역 어르신 300여명을 대상으로 부정맥 검사와 혈압·혈당·콜레스테롤 검사 등 맞춤형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전통 떡 만들기 체험 △등나무를 활용한 식물 바구니 및 스트랩(휴대전화 걸이) 만들기 △옛날 교복을 입고 추억을 남기는 콘서트 사진 촬영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돼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장에서는 웰니스봉사단의 서플랜스와 흥문문화예술단의 '불투립타 장구난타' 공연이 펼쳐져 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의 연대가 어우러진 상생의 장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동시에 지역 내 나눔과 봉사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군산=김만호 기자



농협 고창군지부-해리농협, 노후 주거환경 개선

농협중앙회 고창군지부(지부장 이미정)와 해리농협(조합장 김갑산)은 고창군 해리면에 거주하는 관내 고령 농업인들을 찾아 오래된 싱크대를 교체하는 등 취약농업인 지원 사업을 펼쳤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활동은 생활불편을 겪는 돌봄대상자 어르신이 '농업인행복센터'로 상담을 통해 지원을 요청하여 이루어졌다. 어려움이 접수된 현장으로 달려간 NH농촌진흥청사단은 실사를 거쳐, 농협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어르신의 고통을 해결해 드렸다.

지원을 받게 된 해리면에 거주하는 이모(75) 어르신은 "평소 생활이 불편한 데도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어 어려움이 많았는데, 농업인행복센터와 농협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뿐이다"며 소감을 밝혔다.

해리농협 김갑산 조합장은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돌봄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 아영면, 마을 어르신에 보행보조기 전달

남원시 아영면 맞춤형복지팀은 최근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보조기를 전달하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대상 어르신은 평소 보행이 불편하고 허리가 굽어 외출과 이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으로 해당 마을 이장의 추천과 맞춤형복지팀의 방문·상담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어르신은 "허리가 굽어 걸을 때마다 불편하고 넘어질까봐 불안했는데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셔서 큰 힘이 된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윤자 아영면장은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적극 발굴하고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영면 맞춤형복지팀 김기영 주무관은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지역 맞춤형 복지 사업을 추진해 따뜻한 아영면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통 농경문화, 아이들의 손으로 직접

농진청, 어린이 전통 손 모내기 체험행사

농촌진흥청이 어린이들에게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과 전통 농경문화를 알리기 위해 '전통 손 모내기 체험행사'를 마련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국립식량과학원 중북부작물연구센터 내 벼 시험 논에서 '어린이 손 모내기 체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이 우리 농산물 생산 과정을 이해하고 전통 농업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농업 현장 학습 프로그램으로, 농촌진흥청이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행사는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수원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아들이 참여해 직접 논에 들어가 모를 심는 전통 손 모내기를 체험했다. 어린이들은 흙을 밟으며 모를 심는 과정에 큰 관심을 보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벼가 자라 알곡을 맺고 수확한 쌀이 밥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배우며 식량 생산의 의미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귀리와 트리티케일 등 다양한 식량작물을 관찰하며 우리 농업과 농산물의 가치를 체험했다.



양한 식량작물을 관찰하며 우리 농업과 농산물의 가치를 체험했다.

서정필 중북부작물연구센터장은 "어린이들이 우리 쌀의 소중함을 깨닫고 식량작물의 가치를 배우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가을철 벼 수확 체험과 연계한 다양한 현장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어린이들의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앞으로도 체험형 농업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세대의 농업 이해도를 높이고 건강한 식문화 형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구강보건의 날 기념... 전북대병원, 구강건강 홍보캠페인

전북대학교병원이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병원 내외곽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캠페인을 전개했다.

전북대병원은 10일 전북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주관으로 제1회 구강보건의 날(6월 9일)을 기념한 구강건강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민들에게 구강질환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자가 구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구강건강 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 및 사회적 관심 제고에 중점을 뒀다.

캠페인은 병원 내 호흡기전문진료센터 복도와 전북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진행됐으며, 병원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구강위생용품 전시와 맞춤형 구강상담이 이뤄졌다.

또한 센터 전문 인력들이 직접 참여해 개인별 구강 상태에 맞는 올바른 칫솔질 방법을 교육하고 구강위생 관리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배부하는 등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방 중심 교육을 제공해 호응을 얻었다.

매년 6월 9일인 구강보건의 날은 첫 영구치 어금니가 나오는 시기인 6세의 'E'와 어금니를 의미하는 구치(E齒)의 'B'를 상징해 제정된 날이다.

전북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매년 구강보건의 날을 전후해 장애인 구강 케어의 중요성을 알리고 예방 중심의 구강건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양연미 센터장은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구강 관리가 어렵고 치과 의료 접근성이 낮아 예방과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노년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전문적인 치과 진료와 예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방문 구강보건교육과 공공의료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종철 병원장도 "이번 캠페인 장애인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전북대병원은 앞으로도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 역할을 강화하고 도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장애인을 위한 전문 치과 진료를 비롯해 방문 구강검진, 불소도포 사업 등 다양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며 도민 구강건강 증진에 힘쓰고 있다. /오상근 기자

정읍 택시업계, 이웃 돕기·장학금으로 총 300만원 쾌척

정읍시 개인택시조합과 내장산물운영위원회가 10일 지역 취약계층 지원과 인재 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정읍시에 총 3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개인택시조합은 이날 조합원들의 회비로 마련한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거쳐 홀로 지내는 어르신이나 저소득 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위해 쓰인다.

같은 날 내장산물운영위원회도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장학금 200만원을 건넸다. 위원회 소속 택시 종사자 300여 명이 지역 학생들의 학업을 돕고자 뜻을 모았다.

특히 이 단체는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200만원씩 장학금을 기탁하며 올해로 6회째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내장산물은 정읍시 브랜드 콜택시를 운영하는 단체다. /정읍=김대환 기자



군산경찰,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선제 현장점검

군산경찰서(서장 임정빈)는 지난 9일 여름철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재난 예방을 위해 상습 침수지역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선제적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최근 기상아보정으로 지역별 강우 편차가 심화되고, 시간당 50mm 이상의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군산 지역은 지난 여름 시간당 152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사전점검을 통해 재해재난 취약요소를 파악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번 점검으로 상습 침수도로인 나운동 구보건설 사거리, 집중호우 시 도심지 저지대 우수를 저장하여 피해 발생을 저감시키는 나운동 우수저류조, 미장동 경포천 보행자 언더패스 등 재해예방 시설점검 및 피해 예방활동을 살펴봤다. 또한 군산경찰서는 산사태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90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군산=김만호 기자



군산경찰 교통관리계, 외국인 운전면허교실 운영

군산경찰서(서장 임정빈)는 지역 내 체류 외국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외국인 운전면허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운전면허교실은 군산시가속센터와 협업하여 마련되었으며,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 교통문화 이해와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군산경찰서는 단순 면허취득 지원을 넘어 외국인들의 올바른 교통질서 의식 함양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군산=김만호 기자

전은, 'JB 든든생계비계좌 출시 이벤트' 마무리

전북은행이 고객들의 생활자금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JB 든든생계비계좌 출시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전북은행은 지난 2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 JB 든든생계비계좌 출시 이벤트를 성료하고 당첨 고객에 대한 혜택 제공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생계비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다양한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JB 든든생계비계좌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벤트 기간 계좌를 개설한 고객에게는 2026년 캐시백이 제공됐으며, 월 누적 입금액 30만원 이상 고객에게는 CU 모바일상품권 5,000원권이 지급됐다. 또한 가입 기간 동안 누적 입금액 250만원 이상을 달성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5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가 제공됐다.

당첨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됐으며, 전북은행은 개별 안내를 통해 경품 지급 절차를 마무리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고객 중심의 금융서비스 확대와 생활밀착형 상품 개발을 통해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고객 만족도 향상에 힘쓰고 있다. /오상근 기자

김제 용지면, 에이더블유용지에 착한가게 현판

김제시 용지면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최병삼)가 10일 관내 기업인 (유)에이더블유용지(대표 최광순)를 방문해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착한가게는 매월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사업으로, 이날 (유)에이더블유용지는 용지면 제18호 착한가게로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하게 됐다. 기부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 지원과 다양한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업체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착한가게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최병삼 민간위원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유)에이더블유용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착한가게 캠페인이 더욱 활성화되어 지역사회 나눔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선화 용지면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소중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업체 관계자 여러분에 감사드립니다"며 "기부해 주신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뜻깊게 사용될 예정이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하여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주민과 사업체의 자발적인 나눔 참여를 바탕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해 다양한 나눔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26년 11월 20일 등록(인간)
(9)68-912 전주시 완산구 7-1내부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95-4113	중앙지사 010-9388-6874	남원지사 682-3888	익산지사 010-9342-2725
심천지사 010-2333-4791	손진지사 255-2404	김제지사 545-4227	진안지사 433-3384
사신지사 272-9417	팔복지사 253-6844	남원지사 682-0985	정읍지사 536-5787
호지지사 010-665-9365	군산지사 010-8829-6577	순창지사 683-0444	정수지사 010-3882-8157
	익산지사 686-99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4172-3300
		고창지사 686-6889	

*구독료 : 월13,000원, 1부 500원 인쇄인 김은주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